

조달청, 혁신 실험... AI 직접 개발 등 성과 가시화

- 직원 주도 '인하우스 TF', AI 에이전트 10종·업무 프로그램 12종 개발
- 근무·회의 방식 혁신으로 핵심 업무 집중과 생산성 제고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'실험형 혁신부서'를 운영하는 가운데 '인하우스(In-House) AI 개발 TF'에서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개발, 실무에 적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조달청은 AI 확산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'인하우스 TF'를 신설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실험하고 있다.

이번 혁신 실험은 기존의 경직된 근무 환경을 벗어나 성과와 효율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.

우선, 조달업무를 가장 잘 아는 내부 직원이 AI 개발 대상을 발굴하고 직접 개발까지 수행하는 '인하우스 TF'에서는 성과물을 많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'조달 AI 포털'을 구축하기도 했다. 현재 포털에서는 AI 에이전트 10종과 업무 프로그램 12종이 현업에서 활용되고 있다.

- * AI 에이전트: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, 입찰참가자격 분석, 국회요구자료 관리 등 10종
- ** 업무 프로그램: 계약 통합 관리 프로그램, 공사 공종별 단가기준 비교조항 프로그램, 혁신제품 스카우터 추천제품 중복성 검토 프로그램 등 12종

아울러 조달청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'기관 맞춤형 AI챔피언 운영기관'으로 선정되어 향후 AI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.

- * AI챔피언: 공공행정 분야 AI 전환을 주도하는 현장 실무형 역량을 갖춘 인재로 행정안전부에서는 '25~30년 약 2만 명을 양성할 계획
- ** 기관 맞춤형 AI챔피언 운영기관: 행정안전부에서 AI챔피언 양성을 위해 조달청, 지방자치인재개발원(행정안전부), 국가보훈부, 관세청, 부산시, 인천시, 경기도 등 7개 기관을 선정, 추후 행정안전부 컨설팅 후 '27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운영 예정

조달청은 지난 3월부터 조직 내 불필요한 가짜일 발굴을 현재까지 이어가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.

실효성 낮은 보여주기식 행사 전면 정비, 비대면 회의 원칙, 영상회의 확대, 대면회의 15분 타임제 등 보고와 회의 관행을 간소화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로 탈바꿈하고 있다.

앞으로도 AI 개발 외에도 핵심 업무 중심의 '실험형 혁신부서'를 확대하고 재택·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위케이션 활성화로 일터를 다양화하는 등 더 많은 혁신 실험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직원이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실	책임자	과 장	신동현	(042-724-7082)
	혁신행정담당관실	담당자	서기관	박선옥	(042-724-7070)